

우리 나라 제왕절개의 실태와 대책

우리 나라의 제왕절개 실태가 위험수위를 넘어서고 있다. 제왕절개 수술은 꼭 필요한 의료 기술이지만 필요 이상 시행할 경우에는 산모의 생명까지 앓아갈 수 있어 조심스럽게 시술해야 한다.

이 때문에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국가별로 제왕절개율이 10% 이상을 넘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 하반기(7-12월) 공무원, 교직원 및 지역보험 가입자의 건강 보험 분만 자료 16만1천360건을 토대로 1천487개 분만 기관의 분만 실태를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제왕절개율이 무려 43%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에서 가장 제왕절개 수술을 많이 한다는 미국(98년)의 20%보다 훨씬 높은 수치다.

국내 제왕절개 실태

우리 나라의 제왕절개율은 지난 85년 4만3천856건의 분만 중 제왕절개가 2천611건으로 6%에 불과했다.

그러나 90년 들어 4만5천486건의 분만 가운데 6천67건(13.3%)이 제왕절개로 WHO 권고 수준을 넘어선 데 이어 95년 4만6천487건 중에서 9천909건으로 21.3%로 높아졌으며 98년 상반기에는 3만3천841건 중 1만2천232건(36.1%)로 해를 거듭할수록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공단이 3차 의료 기관, 종합병원, 병원, 산부인과 의원 등 전국 분만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실시한 제왕절개 분만 실태 자료에 따르면 16만1천360건의 분만 중에서 제왕절개 분만자가 6만9천421명으로 제왕절개 분만율이 무려 43%로 꺾중 뛰었다. 제왕절개율이 14년 동안 무려 7.2배 가량 증가한 셈이다.

제왕절개 급증 원인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현행 진료비 지불 방식인 행위별 수가제(Fee for Service) 체제 아래서 서비스를 늘리려는 의료 공급자에 의해 주도된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즉 최근 의사 인력 증가 등 의료 공급은 계속 확대되고 있으나 출산 억제 정책으로 인구 증가율은 1%정도를 유지하고 있어 분만 등 특정 진료 과목에 대한 수요 증가는 제한된 상황에서 분만 방법에서 정상 분만보다 서비스량을 늘릴 수 있는 제왕절개를 선호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이 지난해의 분만 실태를 바탕으로 분만을 위한 입원 기간과 진료비를 계산한 결과, 정상 분만의 경우 입원 기간이 평균 2.9일인 반면 제왕절개 수술은 평균 7.2일로 나타났다.

또 분만에 드는 진료비도 정상 분만이 평균 33만2천885원인데 반해 제왕절개는 평균 86만 3천 491원으로 조사돼 제왕절개를 받으면 53만 가량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제왕절개에 따른 장기간 입원 치료로 산모와 가족이 치러야 하는 기회 비용이 너무 큰 것이다.

대 책

자연 분만이 가능한 산모마저 제왕절개 수술로 내모는 왜곡된 출산 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와 관련, 여성민우회 등 여성 단체에서 올해를 출산 문화 개선 원년으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제왕절개 억제 운동을 벌이기로 해 주목된다.

또 우선 정상 분만과 제왕절개를 할 때 드는 진료비 격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정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와 함께 의료 분쟁에서 '정상 분만 유지, 제왕절개 무죄'라는 판결 추세에 따라 의사가 소신 진료보다는 방어 진료를 하는 동기를 없애기 위해 법제도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경우 제왕절개에 대해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묻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대 의대, 암 박물관 일반인에 개방

서울대 의대는 지난 3월 중순 국내에서 처음으로 문을 연 암 연구소 1층의 암 박물관(<http://cri.snu.ac.kr>)을 지난 7월 12일부터 일반인에게 개방했다.

암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 개설된 암 박물관에는 각종 암의 원인과 증상, 치료법 등을 사진과 그림, 글 등을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 놓고 있으며, 암에 걸린 장기의 실물과 모형이 전시돼 있어 암 예방과 치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 된다.

개방 시간은 월-금요일 오전 10시-오후 3시(토, 일, 요일, 공휴일은 휴관) 문의처(02)3668-7020